2005학년도 의·치의학교육입문 예비검사 문제지

제 1 교시 언어추론영역 홀수형

공통계열 성명 : _____ 수험번호 : _____

- 문항 수가 **50문항**인지 점검하십시오.
- 수험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수험생은 홀수형 문제지로, 짝수인 수험생은 짝수형 문제지로 응시해야 합니다. 문형이 자신의 것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와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지 우측의 '답안지 작성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시험 시간은 **09:00~10:30 (90분간)** 입니다.

1. 낱말의 뜻풀이가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눈자위 : 눈알의 언저리
② 눈두덩 : 눈언저리의 두두룩한 곳
③ 눈살 : 눈과 눈 사이에 있는 살
④ 눈초리 : 눈의 귀 쪽으로 째진 부분
⑤ 눈시울 : 눈언저리의 속눈썹이 난 곳

2. <보기>에서 어휘의 선택이 부적절하여 표현이 <u>어색한</u> 것은?

<보 기>

ㄱ. 저는 여덟 명의 식구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지만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가훈 아래 하루하루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한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ㄴ. 저는 한때 주위 친구들의 의견을 잘 듣지 않고 제 고집대로 일을 처리했으나, 지금은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속에서 더 나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ㄷ. 저의 친구들은 제가 어떤 것에든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항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ㄹ. 저는 학창 시절 축구 동아리에 가입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하면서 회원들을 재정립하여 동아리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ㅁ. 저는 해외 기술 영업 분야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능력을 발휘하여, 귀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OO사 지원자의 자기 소개서 중에서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3. 밑줄 친 '의'의 앞말과 뒷말의 의미 관계를 잘못 나타낸 것은?

①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
: 속성과 대상
② 상금의 얼마를 기탁했다.
: 전체와 부분
③ 나의 고향은 먼 바닷가이다.
: 소유주와 소유 대상
④ 사장의 결정이지만 따르기 어렵다.
: 주체와 행위
⑤ 필승의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목표와 수단

4. <보기>는 '주의(注意)'의 의미와 그 용례이다. 의미와 용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 기>

주의(注意)
㉮ 마음에 새겨 두고 조심함.
㉯ 어떤 한 곳이나 일에 관심을 집중하여 기울임.
㉰ 경고나 훈계의 뜻으로 일깨움.

ㄱ. 진실은 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에 <u>주의</u>하지 않을 뿐이다. - 파스칼 -
ㄴ. 어머니의 <u>주의</u>를 받고 좀 천천히 먹으려고 해도 어느새 또 수저 놀림이 빨라진다.
- 황순원, 움직이는 성 -
ㄷ. 각 고을 두령들은 자기 접 도인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행동에 각별히 유념을 하도록 <u>주의</u>를 시켜야겠소. - 송기숙, 녹두 장군 -
ㄹ. 이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피해야 할 것인지 <u>주의</u>해 주지만, 심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면 좋은지 가르쳐 준다. - 주베르 -
ㅁ. 대비가 자기를 부른 데 대하여 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 홍선은, 대비의 일언일구, 일동일정을 모두 <u>주의</u>하여 보고 주의하여 들었다.
- 김동인, 운현궁의 봄 -

	㉮	㉯	㉰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ㄹ	ㄴ, ㅁ	ㄷ
③	ㄴ, ㄷ	ㄱ	ㄹ, ㅁ
④	ㄷ	ㄱ, ㅁ	ㄴ, ㄹ
⑤	ㄷ, ㅁ	ㄹ	ㄱ, ㄴ

5.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여기가 우리 병원이예요.
ㄴ. 오늘은 여느 때보다 일찍 일어났다.
ㄷ. 기계를 못 쓸 정도로 부셔뜨리고 말았다.
ㄹ. 선생님은 얼굴에 미소를 띄고 말씀하셨다.
ㅁ. 나도 하노라고 했는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ㅂ. 많은 사람들이 막으려야 막을 수 없는 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다.

① ㄱ, ㄹ ② ㄷ, ㅂ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ㄴ, ㅁ, ㅂ

6. 의학 논문은 일반적으로 요약, 서론, 재료 및 방법, 실험 결과, 결과에 대한 고찰, 참고 문헌으로 구성된다. <보기>의 (가)~(라)를 '서론 - 재료 및 방법 - 실험 결과 - 결과에 대한 고찰'의 순서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보 기>

(가) 루푸스는 B 세포의 활동 과다와 핵산에 존재하는 항원에 대한 다양한 자가 항체의 생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성 자가 면역 질환이다. 본 연구에서는 루푸스 환자에서 자가 면역성 형성에 면역글로브린 λ경쇄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면역 억제제 치료의 과거력이 없는 3명의 활동성 루푸스 환자와 2명의 정상군에서 λ경쇄의 생산적 재배합과 비생산적 재배합의 레퍼토리를 비교하였다.

(나) 루푸스 환자군과 정상군 사이의 재배합 형성 과정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르며 선택적 영향도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실험 결과는 재배합 과정과 그에 따르는 선택적 과정의 변화가 자가 면역성 획득에 기여함을 시사한다.

(다) 1명의 루푸스 환자의 $V_\lambda J_\lambda$ 재배열에서 7개의 동일한 염기 서열을 발견하였고 다른 환자에서도 같은 염기 서열 3개를 발견하였다. 이들 염기 서열은 결합 부위에서 H-joining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Fig. 4).

(라) 항응고 처리를 한 말초 혈액 10 ml로부터 Ficoll hypaque gradient를 이용한 원심 분리법을 이용해 단핵구를 분리한 후 PE 표지 항CD19 항체(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로 염색하였다.

① (가) - (라) - (나) - (다)
② (가) - (라) - (다) - (나)
③ (나) - (다) - (라) - (가)
④ (나) - (라) - (가) - (다)
⑤ (나) - (라) - (다) - (가)

[7]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의사 : 메슥거린다고 하셨던 건 좀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보호자 분은 어디 가셨어요?
환자 : 잠깐 담배 피우러 나갔나 봐요. 갠 왜 찾으세요? 혹시……, 제가 무슨 큰 병 걸린 건 아니죠? 암 같은 거 아니죠, 예?
의사 : 그렇진 않고요……. 너무 걱정 마시고 편안히 계세요.
환자 : 대학에 갓 들어간 막내 건사해 줄 사람도 없고, 바깥양반은 온종일 식당 일에 묶여 있고……. 시집간 딸더러 와 있으랄 수도 없고, 제가 이렇게 팔자 좋게 누워서 지낼 수가 없어요. 중병 아니면, 아니 중병이라도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요. 날 좀 내보내 주세요. 선생님!

7. 위 대화로부터 추론한 <보기>의 진술들 중에서 참인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보호자는 환자의 자식이다.
ㄴ. 환자의 막내는 학업 중이다.
ㄷ. 환자에게는 생업에 종사하는 남편이 있다.
ㄹ. 환자는 내과적 증상으로 검사 중이다.
ㅁ. 환자와 의사는 첫 대면이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ㄹ, ㅁ ⑤ ㄷ, ㄹ, ㅁ

[8~9]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의사 :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세요?
환자 : 머리가 묵직하고 통증이 있어서……. 얼마 전부터는 정수리 한가운데가 간헐적으로 쑤셔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젠 두통약을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어찌나 아픈지 송곳으로 콕콕 찌르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엔 잠자다가 한밤중에 아파서 깬 적도 있어요.
의사 : 정확히 언제부터 그렇게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환자 : 한 달쯤 되었나 봅니다. 어느 날 집에서 마감 원고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하면서 현기증이 좀 있더니, 일주일 전부터는 지금처럼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두통이 있을 때면 손이 떨려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냥 방바닥에 드러누워 몇 시간 지나고 나면 좀 나아지곤 합니다만, 뭐 그리 말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8. 위 대화로부터 알 수 없는 것은?

①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② 통증의 발생 시점과 경과
③ 통증에 동반되는 증상
④ 통증의 부위와 양상
⑤ 통증의 지속 시간

9. 환자를 진찰한 후 의사가 할 수 있는 말로, <보기>의 조건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것은?

<보 기>

- 증상과 관련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 준다.
- 환자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위로해 준다.
- 가능한 한 일상어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① 요즘 의료 기술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달했습니다. 이제 두통 정도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 조금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두통은 곧 낫게 될 것입니다.

② 제 전공은 뇌종양 관련 분야입니다. 저만 믿으시고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선 약을 드시면서 나들이를 삼가시고 절대 안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중에 좀더 구체적인 정밀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③ 두통은 현대인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으로, 대략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선생님과 같은 반복적인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우선 몇 가지 검사를 받아 보시지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④ 전에도 환자 분과 증상이 유사한 분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 환자는 수술 후 보름 만에 퇴원할 정도로 쉽게 나았습니다. 환자 분의 경우 정밀 진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치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걱정 마시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들르십시오.

⑤ 유사한 정도의 조직 손상을 입더라도 유전적, 정서적 배경에 따라 사람마다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 줍니다. 브레인 시티를 찍어 봐야 알겠지만, 꾸준히 치료하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약을 드셔 보시고, 그래도 차도가 없으면 그때 치료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지요.

[1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DNA 정보는 몹시 복잡하여 해독이 쉽지 않다. 이것을 해독하는 일은 마치 미지의 고대 언어로 기록된 문장들을 읽어 내는 과정과도 같다. 그러나 생물학자들은 DNA가 언어와 유사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DNA 사슬은 네 가지 '글자(염기 : G, A, T, C)'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들이 모여 하나의 '단어'를 이룬다. 그리고 한 '단어'는 세 개의 '글자'로만 구성되며, 이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룬다. DNA '단어'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단백질 구성 단위인 20개 아미노산을 결정하는 '단어', DNA '문장'의 시작 혹은 끝을 표시하는 '단어', 단백질의 목적지를 지시하는 '단어' 등이 그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언어학적 연구 방법을 응용하여 DNA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졌다. 트리포노프는 DNA 염기 서열이 히브리 어나 에트루리아 어로 기록된 글처럼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DNA가 자주 애용하는 장치들을 여러 개 찾아냈다. 이에 따라 DNA 사슬에서 의미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DNA 사슬에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별다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은데, 이것들을 '잡동사니(junk) DNA'라고 부른다.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든 잡동사니 DNA는 모호한 염기 서열들로 산만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독이 어렵다. 물론 거기에도 해독의 열쇠가 될 만한 글자들의 배열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해독될 가능성은 있다.

언어학적 연구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생물학자들은 DNA '단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던 DNA 사슬 속에서도 핵심적 의미를 갖고 있는 3%의 DNA를 골라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 '단어'들의 의미를 밝혀낼 수 있게 되었으며, DNA 염기 서열들과 그것의 의미를 사전으로 편찬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트리포노프는 이러한 DNA 언어에 '놈(gnome)'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놈'은 세포의 핵 속에 들어 있는 유전 물질 전체를 지칭하는 게놈(genome)의 첫 번째 'e'를 생략하여 만든 것이다. 그런데 '놈'이라는 단어에는 옛이야기 속에 나오는 땅의 요정이라는 뜻이 있다. 이 요정은 지하 보물을 지키는 난쟁이 노인으로 달빛을 등불 삼아 은빛 펜으로 신비로운 글을 썼다고 한다. 또 '놈'에는 '격언(格言)'이라는 뜻이 있어서,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를 간결하게 표현해 준다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놈'은 태고부터 지구에서 살아온 모든 생명체의 비밀을 G, A, T, C의 조합이라는 간결한 언어로 간직하고 있는 셈이다.

10. 글쓴이의 생각을 바르게 말한 것은?

① 연구 대상을 신비화하면 연구의 가치가 부각된다.
② 연구 방법의 정교함은 이론의 정당성을 확보해 준다.
③ 한 분야의 연구 방법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④ 연구 대상의 가치는 그 의미의 해석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⑤ 증거들이 반복되더라도 그 출현이 불규칙하면 의미를 가질 수 없다.

11. 위 글의 내용에 따를 때, DNA 염기 서열의 해독과 관련한 진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단어'의 위치를 알면, 그 의미를 해독할 수 있다.
② 어떤 '문장'이 주어지면, 그 '문장'이 몇 개의 '단어'를 포함하는지 알 수 있다.
③ 시작을 표시하는 '단어'를 잘못 정하면, '문장' 전체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④ 과학이 발달하면, 잡동사니 DNA로부터 '단어'의 의미를 읽어 낼 가능성이 있다.
⑤ 세 번째 '글자'만 다른 '단어'들이 한 유의어군을 이룬다면, 16개의 유의어군을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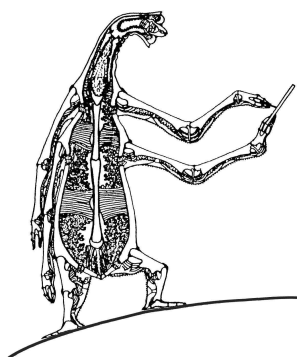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직선은 1차원이고 평면은 2차원이며 공간은 3차원이다. 우리는 공간 속의 존재이므로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다. 3차원 존재인 인간이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식할 수 있을까? 2차원 세계에서의 삶을 다룬 애벗의 <평지(Flatland)>와 같은 소설이 벌써 한 세기 전에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사실 2차원 세계는 낯설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차원 세계에 과연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은 소설과는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능은 2차원에서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상호 작용이 복잡한 뇌 구조를 요구하므로 적어도 3차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이런 주장이 반박되고 있다. 컴퓨터에서는 3차원에서의 교차와 정확하게 똑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2차원에서의 '교차점'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 과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런 장치를 쉽게 설계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설계된 2차원 컴퓨터도 우리의 컴퓨터와 똑같이 작동할 수 있다. 다만 교차를 위해 추가된 회로 때문에 연산이 지연될 뿐이다. ㉠ 그렇다면 이런 회로와 유사한 생물학적인 2차원의 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캐나다의 컴퓨터 과학자 듀드니는 2차원 세계를 지배하는 과학적 법칙을 체계적으로 조사했다. 그는 2차원 세계를 플래니버스(Planiverse)라 부르고, 플래니버스를 모의 실험할 수 있는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는 평평한 원판 모양의 아드(Arde)라는 행성을 설정하고, 그곳의 거주자를 아디언(Ardean)이라고 했다. 우리가 구형인 지구의 표면에 살고 있듯이, 아디언은 아드의 테두리에 살고 있다.

듀드니는 아디언의 모습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에 따르면 아디언은 지구의 곤충처럼 외부 골격을 갖는데, 그 이유는 내부에 골격이 있으면 몸 안에서 피의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 아디언은 몸의 반대쪽에 있는 손을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몸의 양쪽에 각각 두 개의 팔이 달려 있다. 소화 기관은 몸의 전체를 관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몸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소화 계통은 우리와 다르게 작용한다. 실제로 그들 몸의 기능 대부분은 인간과 다르다.



(가) 아디언의 행동 방식 또한 인간과 아주 다르다. 예를 들면, 두 아디언이 만나서 서로 지나쳐 가려면, 한 사람은 다른 사람 위로 올라가야 한다. 아드의 모든 건물은 아디언들이 여행할 때 건물 위로 올라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지하에 건설해야 할 것이다. 또, 아드에서는 자동차와 같이 바퀴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기계는 없을 것이다. 원형 바퀴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에 축을 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날개의 단면과 같은 모양의 비행기는 만들 수 있다.

듀드니는 컴퓨터 모의 실험을 통해 아디언의 기술이 특이하기는 하지만 놀랄 만큼 진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세계와 대단히 유사한 아디언의 '세계'를 창조했다. 그래서 듀드니는 지적인 생명체가 살고 있는 2차원 세계의 ㉡ 존재 가능성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12. 글쓴이가 ㉠과 같은 생각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전제가 아닌 것은?

① 교차 문제가 해결되면 2차원 컴퓨터를 설계할 수 있다.
② 2차원 회로 기술을 3차원 컴퓨터의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
③ 연산의 지연이 컴퓨터의 작동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④ 지적인 2차원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2차원 두뇌가 존재해야 한다.
⑤ 컴퓨터 회로를 유추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컴퓨터와 뇌의 구조는 유사하다.

13. (가)로 미루어 볼 때, 아디언이 할 수 없는 운동은?

① 마라톤 ② 등산 ③ 훌라후프
④ 수영 ⑤ 스노보드

14. ㉡이 뜻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음
② 기술적으로 제작할 수 있음
③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
④ 물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음
⑤ 허구적으로 상상할 수 있음

[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말에 브로카는 왼쪽 뇌의 전두엽(브로카 영역) 손상으로 인해 상대방의 이야기는 정상적으로 이해하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제대로 산출해 내지 못하는 실어증 환자의 사례를 보고하였다. 브로카의 표현성 실어증 사례는 여러 종류의 언어 정보 처리 과정이 뇌의 다른 영역에서 각각 일어날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후 베르니케에 의해 왼쪽 뇌의 측두엽(베르니케 영역)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이야기는 이해하지 못하면서, 의미 없는 문장을 유창하게 산출하는 이해성 실어증 환자 사례가 보고되었다. 베르니케 영역에 손상을 입은 실어증 환자는 단어를 구성하는 말소리는 변별할 수 있지만, 들은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베르니케는 브로카가 보고한 실어증 사례와 자신이 발견한 실어증 사례를 이용하여, 언어 산출 영역과 이해 영역이 신경해부학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두 영역은 '궁형속(弓形束)'이라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은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면 표현성 실어증이 되고,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되면 이해성 실어증이 되는 것을 성공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이 모형은 궁형속이 단절되면, 상대방의 말을 들은 다음에 그대로 따라서 말하지 못하는 ㉠전도성 실어증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베르니케 모형은 실어증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한 최초의 이론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베르니케 모형에서는 언어의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분리되어 있고, 그 영역들은 특정 부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신경해부학적 국재화(局在化) 가설에 모든 연구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국재화 가설에 반대하는 연구자들은 실어증 환자가 일부 언어 기능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뇌 손상으로 인해 뇌의 전반적인 능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쉬운 언어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난이도가 높은 언어 기능은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종류의 언어 정보 처리든 관계없이 뇌의 모든 부분이 협응하여 관련된 언어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견해로서, 전체주의 가설이라 불린다. 전체주의 가설에서는 실어증 환자들의 언어 장애가 뇌의 손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베르니케 모형이 설명하는 것처럼 특정 언어 기능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체주의 가설도 문제점을 갖는다. 실어증 환자를 언어 장애의 정도로 설명한다고 해도, 표현성 실어증과 이해성 실어증이라는 질적으로 다른 두 종류의 언어 장애가 나타나는 사실은 설명할 수 없다. 이처럼 언어 장애가 기능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신경해부학적 국재화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현상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슈빈트는, 인간의 복잡한 인지 과정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종류의 정보 처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인간 정보 처리론을 도입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는 베르니케 모형을 보완하여, 실어증 장애를 뇌 영역의 신경해부학적 손상이 아니라 인간 정보 처리 과정의 이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베르니케-게슈빈트 모형을 제안하였다.

베르니케-게슈빈트 모형에서는 특정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한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단어의 이해와 산출 기능은 정보 처리의 관점에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신경해부학적으로는 뇌의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기능적 단원성(functional modularity) 가설이라고 부른다. 베르니케-게슈빈트 모형은 기능상으로 상이한 형태의 언어 장애를 보이지만, 신경해부학적으로는 국재화되어 있지 않은 실어증 사례도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1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브로카는 국재화 가설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② 베르니케는 브로카의 견해를 발전시켰다.
③ 전체주의 가설은 베르니케의 가설을 부정하였다.
④ 게슈빈트는 전체주의 가설을 보완하였다.
⑤ 게슈빈트는 인간 정보 처리론을 수용하였다.

16. 베르니케 모형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베르니케-게슈빈트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① 궁형속이 손상된 환자의 언어 장애 사례
② 뇌의 손상 영역에 따라 실어증이 다르게 나타나는 사례
③ 문장 이해에 장애가 있고, 의미 없는 문장을 유창하게 산출하는 사례
④ 브로카 영역의 손상으로 순수하게 표현성 실어증의 증상만 나타나는 사례
⑤ 단어의 이해에 장애가 있는 환자와 산출에 장애가 있는 환자의 뇌 손상 영역이 동일한 사례

17. ㉠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대방의 말소리 정보를 자신의 말소리 산출 정보로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② 상대방의 말소리 정보를 자신의 단어 이해 정보로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③ 상대방의 문장 정보를 자신의 의미 이해 정보로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④ 자신의 의미 산출 정보를 말소리 산출 정보로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⑤ 자신의 문법 정보를 의미 이해 정보로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8~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카린시의 소설 <연쇄>에서 주인공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다섯 명의 연쇄적인 친분 관계를 통해 이 세상 사람 누구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어." 주인공은 전혀 모르는 포드 자동차 공장의 한 노동자와 자신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보여 주고 있다. "나는 작년에 파스토라는 한 친구를 알게 되었어. 그런데 파스토는 허스트 출판사의 한 임원을 잘 알고 있지. 그 임원은 또 포드 자동차의 사장을 잘 알고 있고, 사장은 회사의 관리자와 쉽게 연결되지. 그리고 관리자는 자기 휘하에 있는 공장의 노동자를 매우 잘 알고 있어. 나는 이렇게 해서 그 노동자에게 내가 원하는 자동차를 한 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거지."

이 소설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곧 멀어졌다. 그러나 다섯 개 이내의 연쇄적 친분 관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카린시의 생각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섯 단계의 분리'로 알려진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것은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1967년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스탠리 밀그램에 의해서 재발견되었다.

밀그램은 미국 내 임의의 두 사람 사이의 거리, 즉 무작위로 선택된 두 개인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지인들이 필요한지를 알아내고자 하였다. 밀그램은 캔자스 주 위치타,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 등지에 사는 여러 사람들에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매사추세츠 주에 사는 한 여자에게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때 밀그램은 편지를 가장 잘 전해 줄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에게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편지를 전달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편지를 가장 잘 전달해 줄 것 같은 사람에게 연쇄적으로 편지를 전달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그 여자가 편지를 전달받으면 실험은 끝나게 된다.

밀그램은 편지가 도달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후, 편지가 전달되기 위해 필요한 중간 단계의 사람 수를 계산한 결과, 5.5명이라는 수치를 얻었다. 이것은 예상 밖으로 작은 수치였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카린시의 추측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었다. 이 수치를 반올림하면 6이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그 유명한 '여섯 단계의 분리'가 나오게 된 것이다.

노트르담 대학의 바라바시 교수는 밀그램과 비슷한 방법으로 웹 문서 간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예컨대, 바라바시의 대학원 학생의 웹 페이지는 그의 웹 페이지와 바로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한 클릭만큼 떨어져 있다. 반면에 그의 웹 페이지에서 특정 철학자의 웹 페이지로 무작위로 클릭하여 이동하는 데에는 대략 12클릭 정도가 필요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거리가 웹의 크기에 견주어 볼 때 결코 그렇게 멀지 않다는 점이었다. 노트르담 대학의 웹 전체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웹 문서 사이의 클릭 수는 놀랍게도 평균 11클릭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노트르담 대학의 웹은 전체 웹에서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 1999년 당시 전체 웹은 이보다 적어도 3,000배 이상 컸다. 이 사실은 전체 웹에서 임의의 두 노드 사이의 거리가 3,000배나 더 멀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다시 말해, 전체 웹에서는 하나의 웹 문서에서 다른 웹 문서로 이동하기 위해서 33,000클릭이 요구된다는 의미인가?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전체 웹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데, 문제는 그러한 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가) 바라바시는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는 우선 웹에서 10개의 노드로 이루어진 작은 부분을 떼어 낸 다음, 이 작은 샘플에서 임의의 두 노드 사이의 평균 거리를 구했다. 그런 다음, 100개의 노드로 구성된 좀더 큰 부분을 떼어 내어 노드 사이의 평균 거리를 구해 보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컴퓨터 성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샘플의 크기를 1,000개, 10,000개로 계속 늘려 가면서 노드 사이의 평균 거리를 구한 다음, 이들 사이에 어떤 경향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드 간 평균 거리의 증가율은 웹 문서 수의 증가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이 경향은 규칙적이며 아주 단순한 수식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발견에 따라, 전체 웹에서의 문서 수만 알 수 있으면 노드 사이의 평균 거리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NEC 연구소에 따르면 1999년 말 현재 전체 웹 문서 수는 대략 10억 노드 정도이며, 위에서 얻은 수식에 이 값을 대입하면 웹 문서 사이의 클릭 수로 약 19를 얻게 된다. 일반적으로 웹을 서핑하면서 받는 직관적 인상과는 달리, 어떠한 웹 문서도 평균적으로는 자신의 웹 문서와 19클릭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18. 위 글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① 밀그램의 실험은 '여섯 단계의 분리' 현상의 원인을 밝혔다.
② 밀그램 실험에서의 편지 전달은 바라바시 실험에서의 클릭에 대응한다.
③ 밀그램은 카린시의 주장에 근거하여 실험한 결과, 5.5명이라는 수치를 얻게 되었다.
④ 바라바시의 연구 목적은 전체 웹 지도를 작성하는 데 있었다.
⑤ 바라바시 실험에서 웹 문서 사이의 거리는 웹 문서의 수에 정비례한다.

19. (가)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밀러는 원시 지구를 나타내는 물, 메탄, 암모니아, 황화수소가 담긴 플라스크에 번개를 대신하는 전기 방전을 가하여 이들 물질이 아미노산, 지방산, 당 등의 유기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였다.
② 베게너는 노르웨이의 얼어붙은 석탄층에서 아열대 기후에서 자란 나무의 흔적을 발견하고, 세계의 대륙이 원래 하나였는데 서로 떨어져서 지금의 위치로 움직여 갔다는 대륙 이동설을 제창하였다.

③ 배런은 핵무기에도 잘 파괴되지 않는 네트워크를 설계하기 위해 기존 네트워크의 구조를 분석하고 약점을 파악한 후, 각 노드가 소수의 허브에 집중되지 않고 서로 그물처럼 얽힌 인터넷을 고안하였다.

④ 멘델레예프는 여러 가지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여 주기율표를 만든 후, 이들 원소의 성질을 비교하여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여러 원소들의 존재를 예측하였다.

⑤ 밀리컨은 전압이 걸려 있는 금속판 사이에 전하를 띤 기름 방울을 불어 넣고 현미경으로 낙하 속도를 반복 측정한 후, 이를 물리 공식에 대입하여 전자의 전하량이 1.6×10^{-19} 쿨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20~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제 사회 운동은 기존의 사회 제도 밖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병리적 현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제도의 개선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노동 운동은 인간다운 삶의 실현에 기여하였으며, 여성 운동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 운동의 공간과 입지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압축 성장'으로 불릴 만큼 급속하게 전개된 국가 주도의 대외 의존적 산업화는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을 급격하게 증대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분출된 여러 형태의 사회 운동은 권위주의 체제의 막대한 물리적·이데올로기적 통제에 의해 억압되었다. 또한 사회 운동 공간이 협소했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 운동은 규모나 능력의 측면에서 그 성장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한국에서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구(舊)사회운동'의 전개와 여성·환경 등을 쟁점으로 하는 '신(新)사회운동'의 출현이 시기를 거의 같이하고 있다.

서구에서 경제적 관계를 중심적인 대립축으로 하는 구사회운동은 분배적 정의, 균형적 계급 관계, 물질적 풍요와 인간다운 삶의 실현 등의 목표를 추구하였으며, 자본과 노동과 국가가 참여하는 계급 타협과 갈등의 제도화에 기초한 복지 국가의 출현에 의해 그 목표를 상당 정도 실현하였다. 그리고 구사회운동의 목표가 충족된 바로 그 지점에서 신사회운동이 발생하였다. 즉 인간다운 삶이 확보되면서 여성 차별, 소수자 차별, 경제 발전에 의한 환경 파괴, 냉전과 군사주의 등 새로운 갈등 요인이 부각되었고, 이것의 해결을 겨냥한 신사회운동이 성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사회운동은 경제적 관계 대신 다원적이고 분산적인 대립축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집단들 사이의 연대, 탈물질주의적 가치 지향의 특징을 보인다. 이 점에서 신사회운동은 구사회운동에서 배제된 사회 성원들과 가치들을 동원하여 구사회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성찰적 함의도 내포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구사회운동이 그 목표를 완수하기 전에, 즉 구사회운동이 정당 정치의 틀 안에서 제도화되어 계급 타협을 이끌어 내고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전에 신사회운동이 함께 발전하였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다양한 부문들에서 사회 성원들을 탈계급적으로 동원하는 신사회운동에 대해 전체적인 사회 변혁에 필요한 힘을 분산시키고 약화시키는 민주화의 훼방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신사회운동이 경제적 관계와는 다른 대립축들을 둘러싸고 전개되면서 사회 성원들의 이익 표현과 참여를 확대할 뿐 아니라, 구사회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목표를 완결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두 운동을 배타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점은 사회 성원의 다양한 정체성에 따른 자율성 추구라는 개인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서구의 신사회운동과 달리, 한국의 신사회운동이 사회 성원의 기본권 확보 및 확대라는 목표를 추구하며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구의 신사회운동이 '근대의 기획'을 넘어서려는 탈근대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근대의 한계뿐 아니라 전근대(前近代)의 질곡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다고 하겠다. 근대조차 완성되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 신·구사회운동은 산업화의 모순과 민주화의 장애를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 위 글의 견해와 가장 가까운 진술은?

①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구사회운동과 배타적 관계에 있다.
②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근대의 완성과 극복을 함께 지향한다.
③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물질주의적 가치와 목표를 추구한다.
④ 한국의 사회 운동은 산업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⑤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구사회운동이 제도화되면서 발생하였다.

21. 위 글의 내용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 발전에 관하여 단계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② 전체 사회 구조보다는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③ 한국의 구사회운동의 목표와 성과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④ 사회 운동의 역기능을 부각시키는 보수적 관점을 보이고 있다.
⑤ 상이한 사회들에서의 사회 운동 조건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식민 지배 이전 나이지리아 티브 족의 경제는 생계 영역, 위세 영역, 극상(極上) 영역이라는 서로 독립적이고 위계적인 영역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생계 영역에 속하는 재화는 식량, 가구, 농기구 등으로, 이것들 간에는 선물 교환이나 물물 교환 방식의 자유로운 교환이 이루어졌다. 위세 영역의 재화로는 노예, 가축, 약, 의례적·주술적 직위, 놋쇠막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놋쇠막대는 불완전한 화폐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극상 영역은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는 위세재(prestige goods)인 여성에 대한 권리 영역으로서 혼인과 관련되어 있었다.

티브 사람들은 재래 시장에서 식량과 같은 하위 영역의 재화를 소나 놋쇠막대와 같이 위세를 높여 주는 상위 영역의 재화들과 바꾸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각 영역 내의 재화들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는 재화의 교환은 여러 가지 도덕적 제약 하에서 놋쇠막대를 매개로 해야만 가능하였다. 가령 놋쇠막대를 주고 식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사회적 비난을 받았고, 놋쇠막대를 주고 부인을 얻는 것은 불완전한 혼인으로 간주되었다.

식민 통치 이전의 티브 사회에서 놋쇠막대는 부분적으로만 화폐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즉, 오늘날 시장 경제에서의 화폐처럼 모든 종류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교환 수단, 지불 수단, 가치 척도의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티브 사회에는 19세기와 20세기 초반 식민 통치와 더불어 범용(汎用) 화폐가 도입되면서 모든 재화의 교환 가치가 하나의 공통된 척도로 표시되는 상품화가 진행되었다. 티브 사람들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직접 교역에 뛰어들거나 외부 상인들과 계약을 맺고 환금 작물을 재배하여야만 했다. 티브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경제 규모가 확대된 것이고, 예속성이 더 커진 것을 의미한다. 위세를 높이려는 남성들은 농산물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신부값을 지불하여 여성을 얻거나 위세 영역의 다른 재화들을 구입하였다. 그 결과 식량은 더욱더 외부로 수출되었고, 티브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생필품의 양은 점점 줄어들었다. 또한 전통적으로는 부채 개념이 없던 생계 영역에서 부채 개념이 등장하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었다.

식민 통치와 함께 티브 사회의 혼인 관습도 변화하였다. 식민 통치 이전의 티브 사회에서 이상적인 혼인은 서로 누이를 주고받는 형태의 교환혼이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직접 누이를 주고받는 교환혼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상대에게 줄 누이가 없는 남자들은 누이 대신에 다른 여성을 보내고 상대 역시 누이가 없으면 누이에 상당하는 여성을 보내 주었다. 이렇게 누이 대신에 상대방에게 아냇감으로 보낼 수 있는 여성을 '잉골(ingol)'이라고 한다. 서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소규모의 부계 종족(父系宗族)은 잉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잉골 공유 집단을 구성하였다. 이 집단에 속하는 남성들은 각각 한 명 이상의 잉골을 관리하였다. 만일 잉골이 마음에 맞는 남성과 도망치거나 잉골을 받은 쪽이 다른 잉골을 보내지 않으면 보낸 쪽에 대해 부채를 지게 되며, 그 잉골의 공유 집단의 위세는 약화되었다. 이때는 대개 놋쇠막대로 보증금을 지불하거나 소를 주어 채무 이행이 지체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잠재웠다. 그렇지만 놋쇠막대나 소가 잉골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성을 받은 대가는 오직 또 다른 여성으로만 지불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딸을 아내가 원래 속했던 잉골 공유 집단에 보내 부채를 갚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였으며, 때로는 두세 세대가 지난 후에야 부채가 해소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범용 화폐의 도입으로 상품 시장 경제가 서서히 확산되면서 티브 경제의 각 영역 간의 구분은 사라졌고, 여성도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화폐를 지불하고 소유할 수 있는 재화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교환혼이 신부값 혼인으로 바뀐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신부값을 화폐로 받게 된 잉골의 관리자들은 자신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전통적 교환혼을 통해 형성할 수 있었던 친족 집단 간의 사회 문화적 유대감과 결속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여성의 수는 한정되어 있어 신부값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내를 얻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다.

22. 식민 통치 이후 티브 사회에 나타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놋쇠막대를 얻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였다.
② 친족 집단 간 유대를 유지, 강화하는 요인이 늘어났다.
③ 전통적인 위세 영역에서 부채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④ 식량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식량 부족 현상이 완화되었다.
⑤ 현금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환금 작물 재배가 확대되었다.

23. 티브 사회의 변동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사회 변동에서 내적 동인을 중시하고 있다.
② 여성의 삶에 대해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③ 개별 사회가 지닌 사회 문화 체계의 고유성에 주목하고 있다.
④ 경제 체제의 변화보다 정치 권력의 교체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⑤ 공동체 질서의 교란과 가치 체계의 혼돈을 분리하여 파악하고 있다.

24. ㉠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잉골 확보에 점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② 여성을 얻더라도 위세가 커지지 못하고 있다.
③ 영역별 위계 질서의 동요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
④ 잉골과 화폐의 교환 추세에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
⑤ 새로운 시장 경제 체제의 확산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국의 경제학자 맬서스(1766~1834)와 리카도(1772~1823)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다. 맬서스는 "내 가족을 제외하고는 리카도보다 더 사랑한 사람은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들은 경제 문제를 놓고서는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곡물법 논쟁'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영국의 곡물법은 식량 가격의 인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자국의 농업 생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 이 법에 따라 영국 정부는 수입 곡물에 대해 탄력적인 관세율을 적용하여 곡가(穀價)를 적정하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나폴레옹 전쟁 이후 전시 수요는 크게 둔화된 반면, 대륙 봉쇄가 풀리면서 곡물 수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 식량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에 농부들은 수입 곡물에 대해 관세를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요구는 국력의 유지와 국방의 측면을 위해서도 국내 농업 생산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주들의 주장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이와는 달리, 공장주들은 수입 곡물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반대하였다. 관세가 인상되면 곡가가 오르고 임금도 오르게 되며, 그렇게 되면 이윤이 감소하고 제조품의 수출도 감소하여 마침내 제조업의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공장주들은 영국의 미래는 농업이 아니라 공업의 확장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곡물법의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커다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곡물법의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맬서스와 리카도는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맬서스는 곡물의 수입 제한을 주장하였다. 곡물 수입은 곡가 하락을 초래하여 국내 농업에 타격을 주게 되는데, ⓑ 이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식량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며, 이럴 경우 전쟁 등의 비상 사태에 대비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경제가 불안정하게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뿐 아니라 맬서스는 곡가 하락이 상공업 발전에도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곡가가 하락하면 농업 이윤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농업 생산이 축소되면 농업 부문의 고용이 감소함은 물론, 지대의 감소에 따라 ⓒ 지주의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수요 부족에 따른 상공업 부진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반면, 리카도는 이른바 비교 우위론에 입각해 곡물 수입 개방을 주장하였다. 즉 농업 생산에서 영국보다 우위에 있는 프랑스의 곡물을 수입하는 대신, 영국은 그들보다 우위에 있는 다른 생산 활동을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곡가의 상승으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는 농부들이 아니라 지주들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 높은 곡가 때문에 지대가 인상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전체 국민 소득 중 상당 부분이 지주들의 수중에 흘러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 국가의 전체적인 생산 형태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주장 모두 그 나름의 경제적 논리를 지니고 있었지만, 지주와 귀족이 다수였던 당시의 영국 의회는 맬서스의 주장대로 결국 곡물법을 폐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5. 곡물법을 둘러싼 각 경제 주체의 입장을 바르게 추론한 것은?

① 공장주는 제조업의 발전을 위해 자유 무역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곡물법 폐지를 주장하였다.
② 노동자는 생계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의 가능성 때문에 곡물법의 유지를 원했다.
③ 정부는 탄력적인 관세를 적용하여 국내 곡가보다 수입 곡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④ 농부는 곡물법을 통해 물가 상승과 지주의 착취에 따른 손실 보전을 기대하였다.
⑤ 지주는 경제적 차원보다 국방 차원에서 곡물법의 폐지를 반대하였다.

26. 맬서스와 리카도의 논지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맬서스는 연역적 방법을 사용한 반면, 리카도는 귀납적 추론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② 맬서스는 상공업의 발전에서 지주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리카도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③ 맬서스는 예상되는 반론을 비판하는 전략으로, 리카도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전략으로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④ 맬서스와 리카도는 모두 지주들의 증대된 부와 자본이 공업 부분에 투자되어 공업의 발전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⑤ 맬서스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 상공업 촉진 정책을 주장한 반면, 리카도는 비교 우위론에 기초한 자유 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27. ⓐ~ⓔ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 곡물의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② ⓑ: 곡물 수입에 따른 공급 증가량보다 곡가 하락에 따른 공급 감소량이 더 적을 것임을 전제한 것이다.
③ ⓒ: 지주의 소득이 주로 상공업 제품을 대상으로 지출됨을 전제한 것이다.
④ ⓓ: 경작지 확대의 필요에 따른 토지 수요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⑤ ⓔ: 농업 부문의 이윤율이 높아져 자본과 노동이 농업 부문에 편중될 것임을 뜻한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후기 역사학에서 정통론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홍여하(洪汝河)의 『동국통감제강』에서였다. 이는 17세기 중엽, 명·청 교체라는 동아시아 '천하' 질서의 근본적 동요에 따라 중국 대륙에서 중화(中華)가 공석이 되었다는 의식과 함께, 주자학을 수용하여 도학을 밝힌 조선이 이제 소중화(小中華)로서 중화를 대위(代位)한다는 각성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이러한 소중화 의식은 효종 대의 북벌론을 사상적·정치적으로 지지하면서 점차 조선 사회에서 보편화되었다. 다수의 노론 계통 사상가들도 화이(華夷)의 구분은 지리 경계나 종족에 있지 않다고 보면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중화'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처럼 주자에 의해 확립되고 조선 왕조에서도 그동안 굳게 신봉되었던 화이관, 즉 중국 강역에서만 그리고 중국족에 의해서만 '화(華)'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전통적인 화이관은 크게 변질되었다. 나아가 중국 밖에서도, 비중국족에 의해서도 화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인식은 문화 중심 화이론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역사 인식에서 보면 '존조선(尊朝鮮)' 의식의 성립, 강목체(綱目體) 서술의 강화, 그리고 정통론(正統論)의 조선사 적용 등이 그 반영이었다.

이익(李瀷)은 바로 그와 같은 역사 인식을 계승하면서 더욱 논리적으로 체계화하고 질적으로 심화시켰다. 그는 우선 "지금의 중국은 대지 중의 한 조각 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전통적 화이관의 대들보였던 중국 중심의 '천하' 사상을 분쇄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는 중국 중심의 '천하'에 소속된 존재가 아니라, 각기 하나의 독자적 유기체를 이루고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중국 중심 천하관, 즉 유일한 '천하'로서의 '중국 천하'는 병렬된 개별 국가로 분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조선은 하나의 독립된 '역사적 세계'였다. 여기에서 이익의 ㉠'삼한 정통론'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정통론의 적용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익의 정통론이 북벌론자들이나 노론 계열의 그것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후자는 중화의 현실적인 대위라는 '존아적 자기 인식'에서 발로된 것이었을 뿐 중국 중심의 '천하' 의식은 여전했던 데 반해, 전자는 하나의 독립된 역사적 세계로서의 조선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즉 이익은 중국 중심 '천하'의 부정을 전제로 조선의 독자성에 대한 인식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후자는 예악(禮樂)을 기준으로 하되 조선만을 소화 내지 중화로 보았던 데 반해, 이익은 예악이 요(遼)·금(金)·원(元) 등 만리장성 바깥에서도 성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했다. 다시 말해 이익은 중국족의 습속까지 예악에 포함시켰던 노론 계열의 소화 의식과는 달리, 예악을 유교적인 것으로 순화시킴으로써 소화 의식을 내용 면에서 본질적으로 수정했던 것이다.

한편 이익은 결과를 가지고 역사의 성패를 논하면 착오가 많다고 판단했으며, 원인이나 객관적 여건을 중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천하의 제반 역사 운동이나 역사 사실의 전개에서는 시세(時勢)가 기본적 요인이고, 인간 행위는 부차적이며, 도덕적 시비는 천하사의 전개와 거의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때 시세는 어떠한 형태의 법칙성도 거부하는 우연적인 것이며, 동시에 특수한 것이었다. 따라서 실제 역사에 개입된 인간 행위의 성패는 시세에 적합한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된다. 요컨대 그에게 시세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객관적인 여건·정세로서, 무법칙적으로 운동하면서 인간의 의지와 희망에 관계없이 역사를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이익은 ㉡당시까지의 역사 서술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는 이미 결정된 성패를 뒤쫓아가면서 '성(成)'은 곱게 꾸미고 '패(敗)'는 더럽게 만들며, '선(善)'에 대해서는 허물을 숨기고 '악(惡)'에 대해서는 장점을 버려서, 그 성패가 마치 '우지(愚智)에 의한 성패의 판가름'과 '선악응보(善惡應報)'라는 인과 법칙의 당연한 귀결인 것처럼 서술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역사 속에서의 인간 행위를 선악 이원론이나 현불초(賢不肖) 이원론의 시각에서 인식하고 평가하는 역사 서술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들 모두가 역사적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편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역사 운동과 역사 사실을 도덕적 선악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분리하고, 인간 행위에 대해서만 도덕적 선악의 시비 문제를 가리고자 했다. 즉 인간 행위에 대해서는 선은 선으로 여기고 악은 악으로 여기되, 그 선악이 역사 운동과 역사 사실로부터는 완전히 차단·분리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과 도덕의 분화를 의미한다. 이처럼 실제적 사실을 중시했기 때문에, '화'의 기준도 내면적 규범으로서의 도덕과 인의에서가 아니라 외적·객관적 사회 규범으로서의 예(禮)에서 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28. 위 글에서 제시한 정통론의 유형 분류 기준에 따를 때, '천하'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것은?

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어찌 내외의 구분이 있겠는가. 이러한 까닭에 각기 자기 사람들을 친숙하게 여기고 자기 임금을 높이며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풍속에 편안해 하는 것이니, 화와 이는 한 가지인 것이다.

② 내 생각으로는 이른바 중국이란 것이 어찌하여 중(中)이 되는지를 모르겠고, 이른바 동국이란 것이 어찌하여 동(東)이 되는지를 모르겠다. 대저 이미 동서남북의 가운데라면 어느 곳이나 중국 아닌 곳이 없을 것이니, 동국이란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③ 어찌 유독 중화에만 군주가 있을 것이며, 어찌 이적(夷狄)에는 군주가 없겠는가. 천지는 넓고 넓어 한 사람이 홀로 주인노릇 할 수 없으며, 우주는 광대하니 한 사람이 오로지 할 바가 아닌 것이다. 천하는 곧 천하인의 천하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다.

④ 비록 이적의 사람들이라도 이적의 행동거지를 버리고, 중국의 도를 사모하고, 중국의 옷을 입고, 중국말을 하고, 중국의 행위를 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중국일 뿐이다. 지금 우리 조선만이 주자학을 종주로 삼고 있으니, 주례(周禮)가 노(魯)에 있는 격이다.

⑤ 중국인은 중국을 정계(正界)로 여기고 서양을 도계(倒界)로 여긴다. 서양인은 서양을 정계로 여기고 중국을 도계로 여긴다. 그러나 하늘 아래 땅을 밟은 이상, 다들 처한 곳에 따라 정계라고 하는바, 횡계(橫界)도 도계도 없으며 모두 다 같은 정계인 것이다.

29. 이익의 역사관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글쓴이의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인간 행위는 역사 운동과 역사 사실의 전개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역사 운동과 역사 사실은 도덕적 가치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③ 시세의 변화는 인간 행위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④ 인간의 행위는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⑤ 시세는 선악의 도덕 기준을 벗어나 있다.

30. ㉠의 성립 배경으로 볼 수 <u>없는</u> 것은?

① 중국 중심 천하관의 극복
② 문화 중심 화이론의 성립
③ 명·청 왕조의 교체
④ 국경 관념의 변화
⑤ 자존 의식의 고양

31. 이익의 역사관으로 ㉡을 읽을 때, 독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선 속에도 악이 있고 악 속에도 선이 있는 경우를 숙고한다.
② 역사서에 보이는 성패의 결과에서 현실 문제의 추이를 전망한다.
③ 오래 전 과거를 다룬 역사서에 서술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의심한다.
④ 역사서에 드러나 있는 도덕적 시비가 사실 인식을 방해할 가능성을 경계한다.
⑤ 훌륭한 지모가 성공하지 못하고 졸렬한 계획이 실패하지 않은 이유를 성찰한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주가 조릉(雕陵)의 금지 구역에서 어정거리다가 한 마리 특이하게 생긴 까치가 남쪽에서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 날개의 넓이가 7척은 되었고, 눈의 크기도 1촌이나 되었지만, 장주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 밤나무 숲에 앉았다. 장주가 생각했다. "이게 무슨 새인가? 날개가 넓은데도 멀리 가지 못하고, 눈이 커도 알아보지 못하네." 바지를 걷고 재빨리 다가가 활을 쥐고 엿보았다. 매미 한 마리가 호젓한 그늘을 차지하고 제 몸을 잊고 있는데, 사마귀가 몸을 가리고 후려치려고 하였다. 사마귀는 사냥감을 보고 자기 몸을 잊고 있었다. 이상하게 생긴 까치는 그 기회를 틈타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다. 까치도 이익을 보고 참된 자신을 잊고 있었다. 장주는 가슴이 철렁하여 "아, 개체들이란 본래 서로 얽어매고, 다른 것들 사이에 서로 부르는구나!"라고 탄식하고 활을 버린 채 달아났다. 조릉의 관리자가 쫓아와서 장주를 꾸짖었다. 장주는 집에 돌아온 뒤 3개월 동안 뜰에 나오지 않았다.

(나) 장자가 산 속을 가다가 큰 나무를 보았다. 가지와 잎새가 무성하였다. 벌목하는 자가 그 나무 곁에 멈추었지만 베지 않았다. 장자가 그 이유를 묻자, "쓸모가 없다."라고 하였다. 장자는 말했다. "이 나무는 재목감이 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다 누릴 수 있구나." 산에서 나와 옛 친구의 집에 묵었다. 친구는 기뻐하면서 하인 아이에게 거위를 잡아 삶으라고 하였다. 아이가 물었다. "한 마리는 잘 울고, 한 마리는 잘 울지 못하는데 어느 것으로 할까요?" 주인이 말했다. "울지 못하는 놈을 잡아라." 다음 날 제자가 장자에게 물었다. "어제 산 속에서 본 나무는 재목감이 못 되어서 수명을 다 누렸는데, 지금 집주인의 거위는 재주가 없어서 죽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장자는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재주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로 대처할까. 재주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는 그럴 듯하지만 실은 아니다. 그러므로 얽매이는 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만일 도(道)와 덕(德)을 타고서 노닐면 그렇지 않다.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사는 일도 없고 세상에 나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면서 때와 더불어 변화할 뿐, 내가 나서서 전적(專的)으로 하는 법이 없다. 때로는 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래가 되기도 하면서 상대와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보조를 맞추고, 만물이 나오는 근원에서 노닐며 ㉠ 외물을 외물로서 응대해 주고 외물에 의해 속박되지 않는다면 [物物而不物於物], 어찌 외물이 나를 얽매이게 할 수 있겠는가?"

(다) 얼마 뒤에 자여가 병이 났다. 자사가 방문하자 자여가 말했다. "위대하다, 조물주여! 나를 이처럼 꼬부라지게 만드는구나!" 굽어서 등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오관이 있고, 턱은 배꼽에 숨었다. 어깨는 이마보다 높고 목뼈는 하늘을 가리켰다. 음양의 기(氣)가 어그러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한가롭고 근심하는 것이 없었다. 비틀비틀 우물가로 가서 비추어 보고 말했다. "아, 조물주가 또 나를 이렇게 꼬부라지게 만드는구나!" 자사가 말했다. "너는 그것이 싫으냐?" 자여가 말했다. "아니다. 내가 어찌 싫어하겠는가? 점차 나의 왼팔을 변화시켜 닭으로 만들면 나는 시간을 알릴 것이요, 점차 나의 오른팔을 변화시켜 탄환을 만들면 나는 그 탄환으로 올빼미구이를 구할 것이요, 점차 나의 꽁무니를 변화시켜 바퀴를 만들고 신(神)을 변화시켜 말로 만든다면 나는 그대로 타고 달리리니 멍에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생명을 얻은 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이요, 생명을 잃는 것도 변화에 순응하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때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죽음의 변화에 순응하여 처한다. 슬퍼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은 그 사이에 개입할 수 없다. 이것이 옛 시대에 말했던 ㉡ 현해(懸解 :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 장자(莊子) -

32. 위 글로부터 이끌어 낼 수 없는 것은?

① 타자에게 이용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도리어 침해를 당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②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여 외물에 접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을 얽매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③ 인간에 대한 속박은 외물에 의해 야기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자신의 대응 방식에 의해 초래되기도 한다.
④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을 세울 수 없다.
⑤ 도와 덕은 외물에 의한 속박에서 벗어나는 방도가 된다.

33. ㉠의 취지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가난해도 즐거워하고, 부유해도 예(禮)를 좋아한다.
ㄴ. 물의 흐름과 같이 상대의 조건에 따라 변화하면서 대처한다.
ㄷ.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래에 처하는 방식을 취한다.
ㄹ. 오래 산다고 좋아하지도, 일찍 죽는다고 슬퍼하지도 않는다.
ㅁ.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비출 뿐 아무런 자취도 남기지 않는 거울처럼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① ㄱ, ㅁ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34. ㉡에서 '현(懸)'은 어떤 것에 매달려 있는 상태, 즉 속박을 뜻한다. 이 '현'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가)~(다)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에서 까치가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망각한 것이나, 장자가 까치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상황을 잊은 것은 '현'의 사례이다.
② (가)에서 관리인이 장자를 꾸짖은 것은 '현'의 상태에서 벗어난 자가 '현'의 상태에 빠진 자를 비판한 것이다.
③ (나)에서 재목감이 못 되어 살아남은 것이 곧 '현'의 상태를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④ (나)에서 "나서서 전적(專的)으로 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은 '현'의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다.
⑤ (다)에서 자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순응하여 유유자적하는 것은 '현'의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다.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75년 4월 15일, 21세의 미국 여성 카렌 퀸란은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9일이 지난 후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카렌은 신경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성 클레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입원 초기부터 카렌은 혼수 상태에 빠진 채 인공 호흡기로 호흡을 했다. 카렌에게는 처음에는 입으로, 나중에는 비위관(鼻胃管)으로 물과 음식물이 공급되었다. 다섯 달이 지난 후 카렌에게 뇌졸중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종류의 신경원 손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근육은 경직되고 수축되었으며, 체중은 현격히 줄어들었다.

성 클레어 병원 측에서는 카렌이 회복될 확률이 백만 분의 일이라고 했다. 마침내 가족들은 카렌이 의식을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카렌이 자신의 몸을 이런 상태로 계속 놓아 두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카렌의 부모는 카렌이 이전에, 만약 끔찍한 일이 그녀에게 벌어지면 기계에 의존해서 식물 상태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의 본당 신부는, 교황 비오 12세에 따르면 생명의 유지를 위해 인공 호흡기 같은 특별한 수단을 지원하는 것이 가톨릭 신자들의 도덕적 의무는 아니라고 했다. 마침내 카렌의 부모는 인공 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카렌을 죽게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카렌의 주치의였던 모스와 야베드는 이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의사들은 카렌의 부모가 나중에 변덕을 부려서 의료 과오 소송에 휘말리게 될까 걱정했다. 그들은 카렌의 전원(轉院)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딸의 호흡기를 제거하기 위해, 카렌의 아버지 조셉 퀸란은 암스트롱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 사건은 처음에 뉴저지 주 검인 법원(檢認法院)의 뮤어 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단순히 호흡기를 떼는 데 동의해 줄 수 있는 병원으로 카렌을 옮기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암스트롱은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택했다. 그는 카렌을 '죽게 내버려 두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변호사가 판사에게 ㉠조셉 퀸란은 딸의 호흡기가 제거되기를 원한다고 밝히자, 뮤어 판사는 ㉡카렌의 부모가 더 이상 카렌의 후견인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제 암스트롱은 카렌을 죽게 내버려 둘 근거를 찾아서 제시해야만 했다. 처음에 그는 카렌이 법적으로 뇌사라고 주장했다. 뮤어 판사는, 그녀의 상태가 회복 불가능할 것이라는 신경학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카렌의 뇌간(腦幹)이 아직 기능하고 있으므로, 뉴저지 주의 법에 따라 전뇌사(全腦死)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카렌의 주치의는 호흡기를 떼어 낸 의학적 전례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모스의 변호사 포르지오의 변론 요지는, 타인이 평가한 카렌의 삶의 질에 기초해 카렌을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비로운 죽음'으로 미화하려는 이 일이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 한 사람이 살아 있음을 인정하고 진행되는 한, 나치의 가스실을 작동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명의 신성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신이 아니다."라는 말로 법정을 환기시켰다.

카렌이 입원한 지 거의 7개월이 지난 1975년 11월에 뮤어 판사는 카렌의 인공 호흡기를 떼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카렌의 의사가 서면으로 쓰인 적이 없기 때문에 카렌 본인의 의사를 알 수 없으며, 그녀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는 부모의 증언도 결정적인 것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죽을 권리'는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카렌의 부모는 항소하였고, 상급 법원인 뉴저지 주 최고 법원은 1976년 1월에 카렌 부모의 손을 들어 주었다. 미국 헌법이 보장한 프라이버시권은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죽어 가는 환자의 가족이 환자에게서 생명 유지 수단을 제거함으로써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을 허용할 정도로 넓다는 것이었다. 이 판결은 뮤어 판사의 판결과 더불어 의학적·법적·윤리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안락사 찬반 논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5. 뮤어 판사가 판결의 근거로 채택한 것을 <보기>에서 바르게 고른 것은?

<보 기>

ㄱ. 신경학자들은 카렌이 회복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증언했다.
ㄴ. 카렌의 뇌간이 기능하고 있다.
ㄷ. 문서화된 카렌의 유언이 없다.
ㄹ. 가족들이 카렌의 평소 의사에 관해 증언했다.
ㅁ. 헌법에 죽을 권리에 관한 조항이 없다.
ㅂ. 헌법에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조항이 있다.

① ㄱ, ㄴ, ㅁ ② ㄱ, ㅁ, ㅂ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ㅂ ⑤ ㄷ, ㄹ, ㅁ

36. 다음은 카렌 퀸란 사건을 취재하고 분석한 기자의 수첩이다. 정확한 보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카렌의 부모 : 회복 불능 - 호흡기 제거를 요청.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살인이 아니다. 신부의 유권 해석이 도덕적 부담감 덜어 준 듯. ①
모스와 야베드 : 카렌의 회복 가능성 없다고 판단. 카렌의 전원을 허락하지 않음. 의료 과오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 ②
앰스트롱 : 죽게 내버려 달라. 전원 요청보다 어려운 소송 선택. 카렌을 뇌사로 주장한 것은 전략적 실수. ③
포르지오 : 호흡기 제거를 가스실에 비유. 선정적 변호. 카렌이 뇌사의 기준상 살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 ④
최고 법원 : 프라이버시권 적용 → 기존 판결 번복. 기존 헌법 조항의 확대 해석 → 뇌사의 새 기준 제시. ⑤

37. 뮤어 판사가 ㉠을 듣고 <보기>와 같은 추론을 거쳐 ㉡에 도달하였다고 하자. 이때 A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 호흡기를 제거하면 카렌은 죽을 것이다. ↓ A ↓ 카렌의 후견인은 카렌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 ㉡

① 카렌의 죽음은 카렌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② 카렌만이 호흡기의 제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카렌의 후견인만이 카렌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카렌 후견인의 이익은 카렌의 이익과 일치해야 한다.
⑤ 카렌의 부모라도 카렌의 후견인 자격을 갖지 못할 수 있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코난 도일의 이야기에서 셜록 홈즈는 뛰어난 통찰로 범행의 단서들을 추적하면서 사건들을 명쾌하게 해결해 나간다. 범행 단서들에 관한 홈즈의 설명은 언제나 경찰이 제시하는 설명보다 완벽하고 포괄적이다. 이러한 홈즈의 명쾌한 설명은 범인이 잡히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그의 설명이 다른 어떤 설명보다도 옳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이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주장이 다른 주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뛰어나다면, 그것은 그 주장이 옳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한다. 이런 방식의 추론을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이라고 부른다.

이는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추론 방법으로서, 과학의 영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과학에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경쟁적 이론들이 여럿 있을 때, 어떤 이론을 더 좋은 이론으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과학 이론은 관측으로 직접 검증되기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하므로,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은 어떤 이론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가령 어떤 과학 이론이 다른 과학 이론들에 비해 현상을 더 성공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는 그 이론을 더 좋은, 나아가 올바른 이론으로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된다.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은 과학적 실재론을 옹호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 여기서 과학적 실재론이란 과학 이론이 외부 세계를 참되게 혹은 적어도 근사적으로 서술한다고 믿는 관점이다. 나아가 그러한 과학 이론 안에 가정된 이론적 존재자들 역시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들을 표상한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과학 이론이란 자연 세계를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언어이다. 그런데 자연 세계 안에는 현상

이면에 그 현상을 일으킨, 하지만 우리가 직접 관측할 수는 없는 사물들이나 원리들이 존재한다. 과학 이론은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매우 추상적인 언어들로 서술된다. 따라서 어떤 과학 이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경험을 통해 직접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과학 이론 안에 가정된 이론적 존재자 역시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을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된 허구일 뿐인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원자 핵 속의 미시 물리 현상을 설명하는 쿼크(quark) 이론은, 핵 속에 존재하는 양성자나 중성자를 쿼크라는 입자들의 덩어리로 가정하고, 핵의 물리 현상들을 매우 성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데 쿼크 이론에서 가정하는 쿼크 입자는 현재로서는 직접 관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쿼크 이론이 옳은지 그른지를 경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직접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학적 실재론자는 쿼크 이론이 미시 세계를 참되게 혹은 적어도 근사적으로 서술하며, 쿼크와 같은 이론적 존재자들이 실제의 사물을 지시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는 과학 이론을 보는 하나의 철학적 관점이자 신념이다. 다시 말해 과학 이론이 단순히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적 도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경험적 세계든 직접 관찰 불가능한 세계든, 그것에 관한 참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믿음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 자체를 옳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과학적 실재론자가 그러한 믿음을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런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실제 역사 속에 드러난 과학 이론의 성공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즉 과학적 실재론이야말로 과학의 성공이 결코 우연이나 기적이 아님을 보여 주는 유력한 관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과학사를 보면 많은 과학 이론들이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별의 운행과 관련하여 점성술의 설명보다는 천문학에서의 설명이 훨씬 더 성공적이며, 천동설보다는 지동설에 입각한 천문학 이론이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실재론적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들은 이러한 성공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적 실재론이 옳다고 받아들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과학적 실재론자는 주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과학적 실재론이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을 통해 옹호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은 합당한 추론 방법으로, 일상적인 영역이나 과학의 영역에서 지금까지 널리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적 실재론이 옳다고 증명할 수는 없으나, 과학적 실재론이 옳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38. 위 글의 핵심적인 문제 의식은?

① 과학적 실재론은 과학의 성공에 대한 최선의 설명인가?
② 과학적 실재론은 과학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가?
③ 과학에서의 이론적 존재자들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④ 과학 이론은 세계에 관한 참된 서술인가?
⑤ 과학 이론은 검증 가능한가?

39. ㉠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① 어제 우리 부서 회식 때 모두가 옻닭 요리를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나와 김 과장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옻이 올라 치료를 받았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몇 차례 일어났기 때문에, 나와 김 과장은 별 의심 없이 우리가 옻에 대한 저항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② 우리 축구 대표팀은 혹한의 러시아에서 치른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열사의 이집트에서 벌어진 경기에서도 승리했다. 최근에는 일본과의 수중전에서도 좋은 경기를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의 고산 기후를 걱정하지만, 나는 내일 멕시코와의 경기에서도 우리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믿는다.
③ 용기 안에 두 물질 A와 B의 혼합물이 들어 있다. 철희는 A를 분리해 내려고 B하고만 반응하는 물질 C를 용기 안에 집어넣고 가열했다. B와 C의 화합물은 휘발성이 높다. 한참을 가열하여 생겨난 기체를 모두 밖으로 빼고 나니 용기 밑바닥에 흰색 침전물이 남았다. 철희는 이 침전물이 A라고 결론 내렸다.
④ 어제 한밤중에 벽을 긁고 천장에서 달리는 소리 때문에 우리 식구 모두 잠을 설쳤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부엌이 엉망이고 치즈 덩어리가 없어졌다. 어머니는 쥐, 아버지는 도둑고양이 때문이라 하셨다. 하지만 밤새 부엌문과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치즈 부스러기가 있던 곳에 찍힌 발자국이 고양이 것보다 훨씬 작았다. 어머니 생각이 옳았다.
⑤ 영수는 역사를 잘 모른다. 최근 불거진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 한국사와 해양사를 전공한 저명한 김 교수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이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일본해로 표시된 지도도 대개 19세기 말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이 노골화된 시점에 제작된 것으로,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영수는 동해 표기가 올바르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40. 과학적 실재론을 비판할 때,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바르게 고른 것은?

<보 기>

ㄱ. 과학의 성공은 우연이나 기적이 아니다.
ㄴ. 과학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때 실패하는 이론들이 매우 많다.
ㄷ. 한 현상을 똑같이 잘 설명하면서도 서로 다른 과학 이론들이 있을 수 있다.
ㄹ. 성공적인 과학 이론이 가정하는 이론적 존재자들이 나중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럽의 유화에는 여성이 그 중심 소재로 끊임없이 등장하는 범주가 있다. 누드화가 바로 그것이다. 누드화를 통해 우리는 유럽 전통에서 여성이 그림의 주제가 될 때의 관습과 기준들을 발견할 수 있다. 클락의 『누드(The Nude)』(1959)에서 시도되고 있는 누드에 대한 설명은 소위 '상식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입장을 대변한다. 그는 누드를 예술의 형식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누드'라는 단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더라도 하등의 불편한 의미를 함축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는 누드를 단순한 벌거벗음(nakedness)과 구별한다. 누드와 달리 벌거벗음은 그 일반적인 의미대로 옷이 벗겨졌음을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 우리들 대부분이 느끼게 되는 어떤 당혹감을 함축한다고 본다. 반면 누드는 이 벌거벗음을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봄으로써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어느 정도까지만 사실이다. 우선 누드라고 해서 모두 예술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예술이 아닌 누드 사진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 누드가 보는 방식에 따른 관습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한 점에서는 클락이 옳다. 하지만 이들 관습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화가 넬리가 찰스 2세의 밀명을 받아 그렸다는 <비너스와 큐피드>를 보자. 그림 속의 여인과 소년은 비너스와 큐피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누드화에서 비너스로 그려진 여인은 넬 구인이라는 후궁이다. 그림 속에서 그녀는 매우 수동적인 자세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관람자를 응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유럽 전통 누드화의 전형이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분명해지는 것은 누드는 성(性)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누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저 예술의 한 형식이라고 답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벌거벗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누드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벌거벗은 채 보여지지만 자신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누드가 되기 위해서라면 벌거벗은 몸은 하나의 대상으로 보여져야 한다. 벌거벗는 것은 드러나는 것이지만 누드는 전시하는 것이다. 벌거벗는 것은 가식이나 숨김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전시품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벌거벗은 외관인 피부와 체모를 가장(假裝)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누드에서 이러한 가장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누드는 벌거벗는 것이 아니다. 누드는 일종의 복장이다. 누군가가 누드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바로 누드가 벌거벗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럽의 누드화들을 보면 그림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절대 그려져 있지 않다. 이 주인공이란 그 그림 앞에 서서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 주인공은 대개 남자였으리라. 모든 것이 그가 거기 있음을 상정한 채로 그려져야만 한다. 그림 속의 여성이 누드가 된 것은 그를 위해서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누구에게 보여질지 모른다. 그녀를 보는 그는 낯선 이이며, 게다가 옷을 입고 있다. 비록 그림 속에 그녀의 연인이 등장하더라도 누드화 속의 여성이 그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그녀의 시선은 그를 피하고 있다. 아니면 그녀는 아예 그림 밖에 있을 연인에게 복종적인 눈길을 주고 있다.

누드화를 둘러싼 관습을 따르지 않는 유럽 누드화가 있기는 하다. 누드화라는 전통을 형성해 온 수십 수백 만의 그림들 중 아마 백여 점이 될까 말까 하는 이 극소수의 그림들은, 사실 누드화로 분류되지 말았어야 하는 것들이다. 그들은 누드화의 규범을 파괴한 것들이다. 그들은 대개 ㉡화가의 연인이 벌거벗은 채로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다. 이 경우, 그려진 여인에 대한 화가의 개인적인 영상이 너무도 강해서 거기에는 관람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관람자는 그들의 관계를 목격할 뿐이다. 그는 그림 속의 여인이 자신을 위해 벌거벗었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는 그녀를 누드로 바꾸어 버릴 수 없다. 화가가 그녀를 그린 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화가는 그녀의 이미지를 구성하면서, 또 그녀의 자세와 표정을 표현하면서, 그 속에 그녀의 의지와 감정이 포함되어 있도록 그렸던 것이다.

41. 글쓴이가 누드에 관한 클락의 설명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① 클락의 설명은 유럽 전통의 누드화들에만 적용된다.
② 클락은 누드와 성의 명백한 연관성에 주목하지 않았다.
③ 클락은 예술이 아닌 누드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④ 클락은 벌거벗음이 당혹감 같은 부정적 의미를 함축한다고 보았다.
⑤ 클락이 분류한 누드화 중에는 누드화로 분류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42. 문맥상 ㉠이 의미하는 것은?

① 누드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자의적이다.
② 누드 모델이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③ 가식적인 표정과 자세는 누드의 필수 요소이다.
④ 누드는 보는 방식이므로 옷을 입은 누드도 있다.
⑤ 보여지는 전시품은 그 자체로 이미 꾸며진 것이다.

43. ㉡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모델의 시선이 작품의 감상을 방해한다.
② 모델에 대한 작가의 해석이 들어가 있다.
③ 모델이 성욕의 주체로 묘사될 수도 있다.
④ 모델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다.
⑤ 모델이 옷을 벗고 있기 때문에 누드로 분류되어 왔다.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어둡고 습했다. 목이 말랐다. 숨쉬기가 곤란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호흡이 전혀 트이지 않았다. 땀방울들이 종기처럼 떼거리로 돋아났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방이 암흑인데, 어디선가 가느다란 빛이 보였다. 나의 쓸모없는 눈에 잡힌 그 빛은 금방이라도 그림자가 되어 풀썩 쓰러질 것처럼 희미하게 흐느적거렸다. 나는 갑갑하고 안타까웠다. 나는 저 빛이 검은 재가 되어 아주 가라앉기 전에 이 곳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빛이 흘러 들어오는 곳을 향해 날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 어깻죽지에 날개가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 냈다. 나는 날개를 활짝 펴 보았다. 크고 힘찬 나의 날개가 나를 황홀하게 했다. 나는 목마른 것도 잊고, 숨이 가쁜 것도 잊고, 나의 날개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볼수록 대견하고 신이 났다. 나는 날개를 펄럭였다. 크고 힘찬 날개가 금방이라도 하늘을 차고 올라갈 것만 같았다. 나는 빛이 스러지기 전에 서두르자고 다그쳤다. 힘차게 날갯짓을 했다. 그러나 나의 몸은 그 어둠 속에 그대로 있었다. 나는 다시 맹렬한 기세로 날갯짓을 해 보았다. 하지만 나의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는 것은 날개뿐이었다. 크고 가벼운 날개뿐이었다. 나의 다리는 땅 속에 심겨져 있었다. 마치 나무처럼 땅에 박혀서 꼼짝을 하지 않았다. 숨이 막히고 목이 말랐다…….

(나) 꿈은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현실인 것 같지가 않았다. 꿈을 꾸면서도 나는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자각하고 있었다. 이상한 현상이었다. 거기다가 나는 꿈속에서 그 꿈의 출전(出典)까지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H. M. 호프의 책이었다. <예술가>라는 그 소설의 한가운데 그런 그림이 있었다. 날개를 퍼덕이지만, 몸이 땅에 심겨져 날지 못하는 한 사람의 그림. 이상한 그림을 다 그려 놓았구나, 생각하며 들여다본 기억이 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어떻게 내 꿈속으로 들어온단 말인가…….

나는 김기홍에게 전화를 걸어 어째서 상대 후보가 조찬 구라는 걸 말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김기홍은 나의 항의를 무시했다. 자신이 말하지 않았어도 결국 알게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상대가 누구면 어떠냐고 말했고, 오히려 잘 아는 상대이니 일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그는 자신과 나의 특수한 관계를 자꾸만 상기시키면서 다른 생각은 하지 말 것을 몇 번이나 주문했다.

"일은 이미 시작됐어. 어차피 할 거면서 혼자 의로운 척, 순결한 척 위장하는 거, 제발 고만 하자고. 피차 시간 낭비야. 나는 너를 알아. 너도 나를 알고. 더 무슨 말이 필요하지?"

그는 좀 화가 난 것 같은 목소리를 냈다. 마치 징징거리는 어린애에게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야단치는 듯했다. 그의 뜻밖의 힐난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내 속의 가장 부끄러운 부위를 억지로 보여 준 것과 같은 치욕으로 몸을 떨었다. 그는 더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 전화를 끊었다. 나는 좀처럼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나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우리 안을 휘젓고 다녔다.

몇 시간 후 사무장은 내 앞에 봉투를 내놓았다. 나는 무어냐고 묻지 않았다. 사무장은 액수를 말했다. 그것은 지난번에 내가 받은 것보다 두 배쯤 많은 금액이었다. 큰 돈이었다.

"변호사님께서는 선생님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기신 겁니다. 어디, 함부로 이런 일을 부탁할 수 있습니까? 그 점을 꼭 생각해 주십시오. 변호사님께서 자신의 믿음과 우정을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장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나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다. 그 돈이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었다. 어차피 남의 집일망정 내 서재가 따로 있는, 조금 넓은 공간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시골에 혼자 계시는 어머님의 낡은 집을 수리해 드릴 수도 있을 것이었다. 또…… 그러나…… 나는 오랫동안 방 안을 어슬렁거렸다. 마음은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았다. 좀처럼 수습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그만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 버렸다. 잠을 자고 싶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좀 달라져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가 잠을 청할 때마다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그런 기대가 충족되곤 했다. 잠을 자기 전에는 몹시 심각하게 마음을 끓이던 일도 자고 일어나면 아주 시시한 일로 바뀌어 있곤 했다. 오늘이야말로 더욱더 그와 같은 잠의 신비한 마력에 잔뜩 기대를 걸고 싶은 심정이었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할 참이었다. 하지만 잠은 좀처럼 찾아와 주지 않았다. 나는 침대 위를 몇 바퀴 굴렀는지 모른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겨우 잠이 들었는데, 그 속에서 그와 같이 야릇한 꿈을 꾼 모양이었다.

나는 애써 정신을 수습하고 책상 앞으로 다가가 H. M. 호프를 찾았다. 그림이 나오는 페이지를 펼쳤다. 내 꿈을 복사한 것 같았다. 나는 책상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 채 읽지 못한 부분을 마저 읽어 나갔다. <예술가>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꿈속에서 보았고 그의 책 한복판에 그려진 그 이상한 그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

(다) …… 추장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그는 다시 동굴에 갇혔다. 추장은 자신에게 저항하는 무리들 가운데 지도자 격인 한 젊은이를 저주하라고 시켰다. 그 젊은이의 가슴에 칼을 꽂아 피를 토하고 바닥에 쓰러지게 하라고 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심약한 미소년이었던 그가 사냥을 면제받은 대신 맡아 하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그것은 들소나 산양이나 사슴에 대해 하는 것이었다.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이제까지 언제나 명령에 잘 복종했다. 여자를 바꿔 가며 불러들이는 추장의 침소를 치장하라는 요구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했다. 그러나 그는 동족의 가슴에 칼을 꽂는 그림만은 그릴 수 없었다. 주술로서의 그림을 그런 일에 쓸 수는 없었다. 추장은 동굴에 감금하겠다고 위협했다. 전에 사랑하는 여인의 얼굴을 그렸다는 이유로 갇혀 지낸 적

이 있는 동굴이었다. 두 번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그 동굴에 갇히는 쪽을 택했다.

동굴 속으로는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이 들어오지 않았다. 먹다 남은 뼈다귀들이, 그것도 아주 조금씩 던져질 뿐이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의 음식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조차 먹지 않았다. 동굴 깊숙이 들어가 가끔씩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을 받아 마시는 것이 전부였다. 그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진종일 벽을 마주보고 앉아 지냈다. 그의 몸은 점점 허약해졌다. 그러나 그는 면벽(面壁)의 자세를 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순간, 그의 몸이 거의 지푸라기처럼 가늘어졌을 때, 갑자기 그가 바라보고 있는 벽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어떤 깨달음이 그를 덮쳤다. 그는 충동적으로 일어나 벼락처럼 동굴 벽에 매달렸다. 그의 몸 속에서 근원을 알 수 없는 무서운 힘이 꿈틀거리는 걸 느꼈다. 그는 자기 몸의 피를 조금씩 빼내어 동굴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사방이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데, 그가 그림을 그릴 동굴 벽만은 환하게 밝았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 동굴 벽에 매달렸다. 날개를 그렸다. 그의 붉은 피로 그렸다. 날개가 달렸지만, 날개는 퍼덕이지만, 몸이 나무처럼 땅에 박혀 하늘을 날지 못하는, 얼굴이 유난히 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분간되지 않는 인물을 그렸다. 그림은 그의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오는 순간에 완성되었다. 아니, 그 반대인지 모른다. 그의 피는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더 이상 빠져나오지 않았다. 그의 피는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모조리 그의 몸 밖으로 빠져나와 그림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자 그의 몸은 날개처럼 가벼워졌다. 그의 날개처럼 가벼운 몸은 공중으로 둥둥 떠서 동굴 밖으로 날아갔다.

- 이승우, 동굴 -

4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가)는 '나'의 내적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② (나)는 '나'가 처한 현실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③ (다)는 예술가가 처한 현실과 그에 대한 자세를 형상화하고 있다.
④ (나)와 (다)는 인물 설정 및 갈등 해소에 있어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⑤ (가)는 (나)와 (다)를 하나의 이야기로 접합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45. 등장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는 호프의 소설에서 세속적 욕망의 뿌리를 발견하고 있다.
② '나'는 선거와 관련된, 좋지 않은 일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다.
③ 김기홍은 자신의 요구가 '나'에게 관철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④ 김기홍은 금력과 친분을 이용하여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몰아가고 있다.
⑤ '나'와 김기홍은 둘 다 조찬구를 알지만, 그를 대하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다.

46. (다)에서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술 외에도 다양한 목적을 지닐 수 있다.
② 개인이나 집단의 소망 또는 욕망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③ 도덕적으로도 비도덕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기술(技術)이다.
④ 현실적 사물을 소재로 삼되, 그려진 내용은 비현실적일 수 있다.
⑤ 외적인 억압에 정면으로 저항할 때, 비로소 긍정적인 의미를 띤다.

47.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의 위기는 김기홍에게서만 비롯한 것은 아니야. 그의 유혹을 정면으로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나'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야.
② 김기홍을 하나의 단순한 개인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현대 사회의 구조를 대변하는 인물로 볼 수 있을 거야.
③ 동굴은 징벌의 장소인 동시에 재생의 공간이기도 해. 동굴에서 '그'의 육체적 생명은 안타깝게도 없어졌지만, 정신적 생명은 그림을 통해 다시 태어난 것이지.
④ 추장은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권력자로 그려졌군. 그는 생명에 대한 위협을 무기로 삼아, 예술을 정의롭지 않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만들고 있어.
⑤ 예술은 결국 '그'에게 하나의 도피처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드높은 이상과 비루한 현실의 모순에서 '그'는 어쩔 수 없이 환상적인 예술의 세계로 숨어들었던 거야.

[48~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가, 무대로 돌아가면 여자 간호사, 가운을 가져다준다. 가운을 입고 재판석에 앉는다. 라이트가 재판정에 비춰지면 검사, 변호인, 피고인, 재판장이 배석한 재판정이 된다.)

작가 : 지금으로부터 피고인 김기창 씨에 대한 유괴 살인 사건 제1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서 박사 : 잠깐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가 : 그게 뭡니까 박사님!

서 박사 : 이 재판은 언론에 의해 이미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돼 버린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거든, 그 점을 먼저 밝혀야 하지 않을까?

작가 : 말씀하시죠.

서 박사 : (신문철을 재판장석에 가져다 놓는다.) 신문은 검사의 공판 청구 이전에 피고인을 살인범으로 몰고 있어요. 피고인 체포 당시의 신문 머릿기사만 간추리면 "철수 군 살해 진범 체포", "드디어 잡힌 살인귀", "철수 군 살해범 일망타진" 등 모두 피고인을 진범으로 몰고 있거든. 경찰이나 검찰에 공판 청구 이전에 이미 피의 사실을 공표하여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재판에 의해서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네.

작가 : 기자! 기자 역을 맡은 사람이 누구지요?

(환자 중의 기자 한 사람, 열 밖으로 나와 선다.)

환자 3 : 접니다.

(여자 간호사, 빵모자와 파이프 담배 가져다준다.)

작가 : 김기창 씨에 대한 체포 기사를 쓴 사실이 있지요?

환자 3 : 예, 있습니다.

작가 : 진범이란 뜻이 뭔가요?

환자 3 : 진짜 범인이란 뜻이죠.

작가 : 그럼 가짜 범인도 있습니까?

환자 3 : 기사의 박력을 주기 위해선 그냥 범인이라기보다 진범이라고 해야 사회면 대가리 기사가 되기 때문에.

작가 : 진범이라고 단정한 근거는 뭡니까?

환자 3 : 그 당시엔 진범인 줄 알았습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관이 귀띔을 했습니다……. 기자는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느낌과 확신만 있으면 써야 돼요! 기자라고 다 사실을 파헤칠 수는 없어요! 기자는 사실을 해결하는 수사관도 진리를 탐구하는 학자도 아닙니다. 사실의 신속한 전달, 이것만이 기자의 임무요! 특종을 놓치는 것보다 차라리 오보를 내는 게 기자에겐 낫소.

(중략)

작가 : 그럼 진실이란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신문의 기사는 몇 퍼센트가 진실입니까?

환자 3 : 진실이란 게 도대체 뭔가요? 진실이 뭐 말라비틀어진 겁니까? 이 세상 어디에 진실이 있습니까?

작가 :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이제 이만하면 됐어요.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갑시다.

환자 3 : 아니 할 얘기 더 있어요. 나도 신문에 대해 일가견이 있단 말이오. 더구나 오늘 이 연극에 대비해서 연구하라고 하지 않았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갑시다.

작가 : 아니, 글쎄 그만하면 됐다니까요.

환자 3 : 야, 니가 신문이란 것이 무언지 그걸 얘기하래서 열심히 연구해서 나왔는데 중간에서 끊어? 야 이 새끼야 난 적어도 진실하게 연구했어. 이거 도무지 내가 얘길 하면 모두 중간에서 끊어 버리는데…… 나 내 마누라 죽이지 않았어. 보트가 뒤집혔을 뿐야…… 그때 내가 술에 취해서…… 그런데 남들이 날 미친놈이라구 제 여편넬 죽였다구 손가락질하는 게 견딜 수 없어…….

(중략)

작가 : (일어선다) 철수군 유괴 살인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은 피고인 스스로! 박사님.

서 박사 : 이 군, 여긴가?

작가 : 네, 그렇습니다.

서 박사 : 김기창 씨 이리 나오세요. (작가 내려온다. 재판복을 벗긴다. 그리고 김기창에게 입힌다.) 기창 씨 올라가세요.

김기창 : 네?

서 박사 : 올라가세요. (데리고 재판석에 앉힌다. 작가를 피고인석에 앉힌다.) 자, 판결하세요. 피고인 김기창에 대해 판결을 내리세요. (김기창 멍하니 앉아 있다. 작가 피고인석에서 쳐다본다. 서 박사, 자기 자리에 앉는다. 모두 침묵 속에 김기창을 본다. 김기창, 서서히 일어선다. 모든 사람을 둘러본다. 작가를 본다.)

김기창 : 피고인…….

작가 : (일어선다) 네.

김기창 : 피고인은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작가 : (주저하다가) 없습니다.

김기창 : 피고인은 남을 때리거나 괴롭힌 적이 있는가?

작가 : 없습니다.

김기창 : 그런데 왜? 왜 거기 있지?

작가 : 나도 모르겠습니다. 재판장님!

김기창 : 한밤중에 자다 말고 불려 나가 심문 당한 적이 있지?

작가 : (주저하다가) 예, 있습니다.

김기창 : 뺨을 맞고 발길로 정강이를 걷어채인 적이 수없이 많았지?

작가 : 예.

(중략)

김기창 : 피고는 왜 알리바이를 주장하지 않았지?

작가 : 아무도 내 말을 믿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나를 일단 범인으로 본 이상 혜숙이를 끌고 들어간다고 날 믿어 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 이미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 그 여자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린 헤어졌지만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김기창 : 그만! 그만해요! 피고인은 바보다! 죽어 마땅해!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 버려라!

작가 : 재판장! 정의의 심판을 내려 주십시오! 억울한 생명이 암흑 속에서 고통 받지 않도록…… 그래서 이 땅에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김기창 : (정신 차린다) 철수 군 유괴 살해 사건에 대해 판결한다. 피고인은…… 무죄!

서 박사, 작가 : (김기창에게 다가서며) 이제 재판은 끝났어요. 축하합니다. 기창 씨, 축하해요.

(중략)

김기창 : (환자들에게) 여러분! 이웃 여러분! 나를 전처럼, 교도소 들어가기 전의 김기창으로 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환자 : 난 자넬 몰라! (피한다) 아는 척하지 마!

김기창 : 아주머니 안녕하셨어요?

여자환자 : 에구, 징그러워.

환자들 : 전과자!

환자들 : 살인자!

환자들 : 누명을 썼다는데 누가 알아?

김기창 : 아버지!

환자들 : 난 아버지가 아니야!

김기창 : 어머니!

환자들 : 네 어머닌 죽었어!

김기창 : (부른다) 혜숙아!

환자들 : 없어졌어! 떠났어! 너는 혼자야!

환자들 : 전과자야!

환자들 : 살인자! (기창 귀 막는다.)

(환자들 "살인자" 유니송으로 합창하며 기창의 주위를 돈다.)

김기창 : (발작하듯) 난 아니야! 난 죄가 없어, 난 결백합니다. 아버지! 으흐……. (울부짖다가 웃기 시작한다. 서막의 웃음)

서박사 : 간호사! (남자 간호사 기창을 잡아끈다. 기창 악— 비명 지르며 발작하기 시작한다.)

김기창 : 난 아니야! 날 잡아가지 마! 난 죄가 없어!

(질질 끌려 나가는 기창을 보고 있는 환자들)

- 윤대성, 신화 1900 -

48.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① 언론과 일반 대중은 김기창을 진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② 김기창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현재는 정신 치료를 받고 있다.
③ 김기창은 사건 발생 당시,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혜숙과 함께 있었다.
④ 환자 3은 언론에 관심이 많았고, 평소에 기자직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⑤ 서 박사는 김기창이 범인으로 지목된 데에는 언론의 보도 태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49. 김기창과 '작가'의 재판정 장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 장면은 '연극 속의 연극' 부분으로 전체 줄거리와 분리된 독자적 주제를 구현하고 있다.
② '작가'의 대사는 일종의 연극 놀이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발언된 것으로,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없다.
③ 김기창과 '작가'의 역할이 뒤바뀌는 상황은 현실적으로도 이 둘의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④ 김기창이 '작가'에게 하는 고압적인 말투는 그의 내면에 '작가'에 대한 적대감이 숨어 있었음을 암시한다.
⑤ 이 장면은 김기창이 재판장의 역할을 맡아 연기함으로써 자신의 무의식적 강박증과 피해 의식을 객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0. 등장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환자 3은 원작자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을 반어적인 방식으로 풍자한다.
② 김기창과 적대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은 개인이나 운명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사회이다.
③ '작가'는 여러 역할을 바꾸어 연기함으로써, 현대인의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불안감과 소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작품 끝에 등장하는 환자들은 정의와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고 맹목적 편견에 사로잡혀 폭력을 행사하는 군중을 대표한다.
⑤ 서 박사는 외부 이야기로부터 내부 이야기에 개입하여 장면을 편집하고 인위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관객이 이 연극의 극적 상황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한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번 예비검사에서는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